

광주은행,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8년 연속 1위 달성

지방은행 부문…국내 대표 평가지표 신뢰성·가격 프리미엄 등 높은 점수 디지털 혁신·포용금융 혁신 등 호평 “지역 동반성장·지속가능한 경쟁력”

광주은행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주은행은 13일 본점에서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한상록 한국능

률협회컨설팅(KMAC)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 임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K-BPI’는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지표로,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대1 면접조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를 종합 평가한다. 광주은행은 이 조사에서 신뢰성, 가격 프리미엄, 이용대비 노력가치, 타인 추천 의향, 의미전달성 등 로열티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18년부터 8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의 자리를 지켜내

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와의 필요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은행은 지역 기반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과 포용금융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토스뱅크와 금융권 최초로 공동 출시한 ‘함께대출’이 있다. 광주은행의 개인 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정확한 신용 평가

와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출시 초기부터 빠르게 시장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올해 초엔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설해,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8개국 언어 통번역 시스템과 4개국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연구 마케팅의 좋은 예로 최근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출시했으며,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호

응을 얻으며 브랜드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8년 연속 1위의 결과에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해온 선한 영향력들이 광주은행 브랜드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양만권 비즈니스 허브 ‘황금일반산단’ 분양

광양지아이, 이달 26일 분양설명회 광양항·여수공항 등 교통·물류 원황금일반산단 분양설명회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황금일반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업용지 분양에 들어간다. 시행사인 광양지아이㈜는 ㈜BS한양의 100% 자회사로, 오는 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황금일반산단은 광양항 배후단지와 연

계된 친환경·첨단산업단지로, 총 2926억 원을 투입해 약 111만5000㎡(33만7000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해당 산단은 1차 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 전기공급업 등 신소재 산업에 최적화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이미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용지 약 14만 평 중 약 60%가 분양 완료돼 신소재 생산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2단계 용지는 약 10만4000평 규모로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하며, 1단계의 잔여 용지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분양

가는 3.3㎡당 97만 원 수준으로, 인근 산업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황금산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대형 화학기업이 몰려 있는 여수국가산업단과도 인접해 B2B 산업의 연계성이 뛰어나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인접해 있으며, 서측배후도로를 통해 광양항은 물론 남해고속도로와 영암-순천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교통·물류 접근성도 뛰어나다. **오지현 기자**



황금일반산업단지 전경. **BS한양 제공**

광주상의, 미래내일일경험·일자리 지원정책 설명회

여수고용센터 등 6개 기관사업 안내

광주상공회의소는 13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홀에서 전남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내일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2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부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부는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 전

라남도(전남 일자리지원정책)·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장려금)·여수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훈련)·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일자리지원사업 종합안내)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전남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면서 “설명회로 전남권 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위기 탈출

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청년들의 일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래내일일경험 사업홍보,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 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양질의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통한 현장 직무 숙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추진 중이다. **최권범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불갑산 하이패스IC 개통

한국도로공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함평나들목과 영광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불갑산 하이패스 나들목(서울방향)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불갑산 하이패스 나들목 서울방향은 한국도로공사와 영광군이 2023년 3월에 착공해 총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통으로 영광군 지역주민과 주요 관광단지 방문객에 대해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며 “하이패스 나들목을 진입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은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초슬림·초경량’ 갤럭시 S25 엣지 공개

두께 5.8mm 두께·무게 163g

삼성전자가 13일 삼성닷컴 등 온라인에서 ‘Galaxy S25 Edge: Beyond slim’ 행사를 통해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다. 갤럭시 S25 엣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슬림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견고한 내구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갤럭시 S25 엣지는 정교한 설계와 경량화를 통해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5.8mm 두께의 슬림 디자인, 163g 무게를 구현했다. 슬림해진 디자인에도 갤럭시 S25 엣지는 견고한 내구성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S25 엣지는 2억 화소의 초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갤럭시 S25 울트라급의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1200만 화소의 초광각 렌즈로 넓은 프레임의 한 번에 촬영할 수 있고, 접사촬영을 위한

자동 초점도 추가돼 창의적인 시점의 촬영을 지원한다. 또 갤럭시 S25 시리즈의 모든 갤럭시 AI 기반 편집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오디오 지우개’, ‘스케치 변환’, ‘생성형 편집’ 등 다양한 고급 편집 도구를 지원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갤럭시 전용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해당 칩셋은 온디바이스 AI 처리 성능을 강화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아이스블루’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256GB, 512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각각 149만 6000원, 163만 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23일 갤럭시 S25 엣지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14일부터 20일까지 사전 판매를 실시한다. **박소영 기자**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코나 일렉트릭 출시



2025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가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5 아이오닉 5’와 ‘2025 코나 일렉트릭’을 13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2025 아이오닉 5의 엔트리 트림인



2025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제공

트림인 E-VALUE+에 오토 플러스 도어 핸들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동승석 전동시트 △프레스티지 트림에 2열 열선시트를 기본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2025 코나 일렉트릭은 엔트리 트림인

E-VALUE+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한층 높였다. 2025 아이오닉5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E-VALUE+ 4740만원 △익스클루시브 5030만원 롱레인지 △E-Lite 5064만원 △익스클루시브 5450만원 △N Line 익스클루시브 5650만원 △프레스티지 5915만원 △N Line 프레스티지 6025만원이며 2025 코나 일렉트릭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E-VALUE+ 4152만원 △프리미엄 4357만원 롱레인지 △모던 플러스 4566만원 △프리미엄 4657만원 △인스퍼레이션 4992만원이다. 현대차는 2025 아이오닉 5와 2025 코나 일렉트릭 출시에 맞춰 다양한 혜택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소영 기자**